

茶山 社會詩의 性格 變化 檢討

尹載煥*

- I. 序論
- II. 茶山 社會詩의 全貌
- III. 茶山 社會詩의 性格 變貌樣相
 - 1. 仕宦期 - 현실 고발과 대립 구조의 제시
 - 2. 流配期 - 사회 비판과 저항 의식의 표출
- IV. 結論

【요약】

이 글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산의 사회시를 그의 생애와 의식 변화에 따라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다산의 사회시는 그의 나이 33세 때 시작되어 71세까지 지속된다.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창작된 다산의 사회시는 그를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사회시인으로 손꼽게 만들었다.

다산의 사회시는 대부분 서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관찰의 결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서술 중심의 표현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다산의 사회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의 의식세계가 변해 감

*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연구교수

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성격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인식 면에서 살펴볼 때 현실 고발에서 사회 비판이라면 현재에 대한 의식의 강화가 드러난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표현 기법면에서 대립 구조의 제시에서 저항 의식의 표출이라는 비판 정서의 심화와 확대로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사회시 창작 초기 민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민중과의 일체감으로 확대된 결과이다. 민중에 대한 일체감은 그의 사회시가 더 이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고발의 문학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사회시 창작 초기 다산의 사회시는 객관적 관찰을 통한 사실적 표현을 주된 창작 기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실적 표현은 상황과 장면의 제시를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확대된 민중과의 일체감은 다산에게 사실적 표현 이상을 추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다산은 시 속에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현실을 비판하게 된다.

다산의 시 속에서 볼 수 있는 저항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시를 통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를 긍정하였다는 것은 다산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시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I. 序論

茶山은 朝鮮後期를 대표하는 문인·지식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75세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할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154권 76책의 『與

猶堂全書』 속에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저술로 인해 다산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이면서도 현재까지 經世家나 思想家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哲學과 經世의인 부분이 주를 이룬다. 특히 조선후기의 시대적 혼란과 西敎의 유입에 의한 사상적 혼란 속에서 개혁을 주장한 그의 목소리는, 그의 정치적인 면과 사상적인 면을 주목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사상적 관심과 함께 洪以燮¹⁾ 이후 다산에 대한 문학적 접근도 詩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金智勇²⁾·宋載邵³⁾·金相洪⁴⁾·朴茂瑛⁵⁾을 거치면서 다산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깊이와 폭을 더하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다산의 문학 작품 대부분이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산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겪었다는 그의 인생 역정과 당대 사회의 폐단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학문 경향 때문인지 논의의 초점을 그의 社會詩에 두고 있다.

洪以燮 이래 시작된 다산의 시문학, 특히 사회시에 대한 관심은 그가 『여유당전서』 속에서 스스로 언급한 그 자신의 문학관과 詩觀을 통해 볼 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의 사회시는 시 자체로만 보아도 대단한 문학적 성과를 이룬 것이다.

-
- 1)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研究』, 韓國研究圖書館, 1959. 203~230쪽.
이 책에서 홍이섭은 한 章을 할애하여 茶山의 詩에 관해 언급하였다.
 - 2) 金智勇, 『丁茶山의 文學 研究』, 螢雪出版社, 1977.
 - 3) 宋載邵, 「茶山文學研究 -詩를 中心으로-」 서울대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4.
『茶山詩 研究』, 創作과 批評社, 1986.
 - 4) 金相洪, 「茶山 丁若鏞의 文學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5.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 檀國大學校 出版部, 1985.
 - 5) 朴茂瑛, 「丁若鏞 詩文學의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11.

그것은 다산의 사회시가 단순히 사회 비판 의식만을 담고 있는 비판적 개혁 의식의 결과물이거나 자신의 울분을 사회 현실에 빚대어 풀어놓고 있는 한풀이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그 자신의 의식과 정서가 예술적 형상물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⁶⁾

이 글은 이런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다산 사회시의 성격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지금까지 다산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

6) 다산의 사회시 전반이 지니는 의미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이미 宋載邵·金相洪 두 분 선학들의 연구로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산 사회시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산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학위논문 위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盧鍾斗, 燕巖과 茶山の 文學 比較 研究,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金容錫, 茶山詩 研究,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
 許炯萬, 茶山の 詩觀과 社會詩에 關한 研究,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
 鄭順永, 茶山詩에 비친 經世思想,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1.
 金星圭, 丁茶山の 生涯와 藝術觀에 關한 研究,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2.
 金和鐸, 茶山詩 研究,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2.
 鄭珠煥, 丁茶山 流配詩 研究,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
 金洪植, 茶山文學研究(傳을 中心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 23집, 서울사대 석사학위논문, 1986. 2.
 全京男, 茶山の 詩觀과 社會詩에 關한 研究, 국어국문학논문집 24집,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8.
 김성진, 茶山の 寓言 詩文 研究,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8. 2.
 張 弘, 茶山の 流配詩 研究,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
 具鴻模, 茶山の 流配詩 研究,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
 權錫東, 丁若鏞의 流配詩에 나타난 現實 認識放,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8.
 李清聖, 茶山の 社會詩 研究,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7.
 金麟哲, 茶山の 寓意詩文의 研究,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다산의 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그의 사회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사회시에 대한 연구도 對 社會的 機能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대체로 사회시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산의 사회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그의 사회시 전반에 관해 상당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해 내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결론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그간의 연구 결과는 그의 사회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사회시라는 것이 대체로 일정한 主題와 題材를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창작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의 사회시는 그의 생애 중 어느 한 시기에 창작된, 사회에 대한 일시적 관심이나 흥미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다산의 사회시가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다산의 사회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그의 사회시를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언급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다산은 그 스스로 자신의 시 경향이 변해온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⁷⁾, 이런 언급은 다산의 시세계가 그의 의식과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다산의 사회시 역시 그의 의식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변해왔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다산의 사회시에 대한 탐구는 그 전체적인 성격의 해명이나, 주제와 제재에 따른 분석과 함께 생애와 관련된 변화 양상의 탐색까지 이루어질 때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따라 이 글은 다산 사회시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다. 이

7) 『與猶堂全書』 卷 18, 「家誠 示二子家誠」, 「家誠 又示二子家誠」. 이 두 편의 글은 다산이 그의 나이 47세 때 강진의 유배지에서 쓴 글이다. 이 글에서 다산은 이 시기까지 자신의 시 경향이 변해 온 모습에 대해 간략하게 밝혀 놓고 있다.

작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산의 시세계가 지니는 새로운 일면을 밝히는데 일정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茶山 社會詩의 全貌

원칙적으로 社會詩란 “사회 혹은 사회생활을 시의 主題와 題材로 한 모든 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시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 개념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시란 기본적으로 작가가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시적 형상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순수 서정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가 사회시의 영역에 포괄되게 된다. 또, 설사 그렇게까지 넓게 확대시키지 않더라도 사회 혹은 사회생활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관습적으로 사회시란 “時政의 폐단을 풍자하고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며 民生의 疾苦를 반영한 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적인 사회시의 정의 역시 문제를 지닌다. 그것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시의 성격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관습적 정의를 따르면 사회시는 언제 누가 창작한 어떤 작품이든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민중의 불만과 고통을 반영하며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는 현실 비판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시를 정의한다면 사회시의 내용이나 주제는 일률적인 것이 되고, 그에 따라 탐색의 대상 역시 작가의 의식과 창작 의도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런 사회시에 대한 인식과 접근 태도는 사회시를 기능 중심으로 보게 하여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의 개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회시의 개념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포괄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관한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것은 사회시의 외연을 확대하여 사회시 자체의 문학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도 그 시가 사회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민중에 대한 관심과 작가의 대사회적 비판 의식이 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시는 결국 “작가의 대사회적 비판정신이 작품 창작의 기저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중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⁸⁾ 이런 정의는 대사회적 관심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사회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시 작품에 대한 문학적 탐구를 추구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시가 민중들의疾苦와 사회적 비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목적의식 강한 문학양식이며, 사회시에 대한 접근은 일차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⁹⁾

8) 金卿東,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 pp.1~10.

이 논문의 제 1장 제 1절에서 사회시의 개념과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김경동은 사회시의 외연을 확장하여 잠정적으로 “사회시란 작가의 비판정신이 작품 창작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개인적인 생활·체험·희노애락의 감정보다는 개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의 대상으로 한 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회시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김경동의 정의가 백거이의 「新樂府」 중 군주의 선정을 찬미한 것까지 모두 사회시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회시의 외연이 그 작품 자체의 문학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민중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 이 글에서 제시한 사회시의 개념은 試論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사회시의 개념 정리와 외연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시가 지니고 있는 문학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시를 정의하고 난 뒤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작가의 대사회적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는 모든 시를 사회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연작시 중 한 두 연에서 작가의 대사회적 비판의식이 드러나 보일 때, 혹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당대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쓸 때에 해당한다.

명확하게 사회시로 규정할 수 있는 다산의 사회시는 대부분 서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시들의 경우 한편의 시가 지니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향성에서 사회시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와 달리 연작시의 일부에서 강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水田風起麥波長 무논에 바람 불면 보리물결 장관인데
 麥上場時稻插秧 보리타작 할 무렵에 모를 여기 꽂는다.
 菘菜雪天新葉綠 배추는 눈 속에서 새로 난 잎 파랗고
 鷄雛蜡月嫩毛黃 병아리는 선달에 솜털이 노랗다네.

이 시는 「耽津村謠」 15수 중 다섯 번째 시이다. 이 시만 보면 다산의 「탐진촌요」는 다산이 유배 이후 거주하고 있었던 탐진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牧歌的 田家詩라 보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 하지만 다음 시를 보면 성격이 달라진다.

棉布新治雪樣鮮 눈처럼 새하얀 새로 짜낸 무명베를
 黃頭來博吏房錢 이방에 널 돈이라고 나줄 와서 빼앗는다.
 漏田督稅如星火 누전의 조세를 성화같이 독촉하여
 三月中旬道發船 삼월 중순 되면 세 실은 배 띄운다네.

이 시는 같은 제목의 연작시 중 일곱 번째 시이다. 이 시를 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면 앞에서 살펴본 시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이 시의 自註에서 다산은 “王籍에 누락된 民田이 6백 여 結인데 그것을 災結로 거짓 보고하고 있으니 국가 조세가 어떠하겠는가(民田之漏於王籍者 六百餘結 其僞災結 是公室之賦 幾何).”하면서 자신이 이 시를 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탐진촌요」는 모두 15수의 연작시인데, 이 15수 중 사회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시는 3수, 7수, 8수로 모두 3수이다. 이 경우 15수의 「탐진촌요」 전체를 사회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그 가운데 3수만을 사회시라 해야 할 지, 혹은 전체를 사회시에서 제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다산의 연작시 중에서 일부의 시가 사회시적 성격을 지닌 시는 「탐진촌요」를 제외하고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古詩二十四首」 중 제 14수와 15수, 「長鬢農歌 10章」 중 제 4장, 7장, 8장, 「耽津農歌」 중 제 4수와 8수, 「耽津漁歌」 중 제 6수, 9수, 「不亦快哉行」의 제 18수, 「古詩二十七首」 중 제 5, 6, 7, 8, 15수, 「憂來 十二章」 중 제 11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의 연작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은 다산의 대사회적 관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그 스스로 사회시를 쓰기 위해 이러한 시를 쓴 것이 아니었지만 당대 민간의 모습을 시로 읊기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비판의식을 시 속에 형상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비판적 성격이 강한 시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연작시 중 일부가 사회시적 성격을 지니는 시는 사회시 성립의 큰 근거가 되는 작가의 창작 의도라는 면에서 결여 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시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시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회시적 성격을 지니는 이런 일부 시들을 사회시의 영역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런 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들은 사회시의 영역에 우선 편입시키고자 한다.¹⁰⁾

이와 함께 다산의 시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슬회하며 당대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시들도 적지 않다.

赤驥負奇骨	기걸찬 뼈대의 천리마는
駿邁颶風驟	발 빠른 걸음으로 갈기 날리고 싶지만
鬱鬱四極志	동서남북 내닫고픈 뜻만 지니고
乃處巴夔中	힘준한 파축 그 안에 있다네.
山蹊苦多石	산길은 바위가 많아 괴롭고
犖确連箐叢	돌무더기에 숲까지 우거져
悲鳴顧其影	슬피 울며 제 꼴을 돌아보고는
滌右懷長風	걸림새 없는 장풍을 그리워하네.
天廐多繁縷	임금님 마굿간엔 차림새도 많고
鑿績光磨礪	가슴걸이 쇠고리도 번쩍번쩍하지만
所遇有亨否	궁하고 통하기는 때 만나기 맞아서
寔維命不同	그야말로 운명이 같지가 않다네.
鹽車雖匪職	소금수레 끄는 것 맞지 않는 직이지만
聊爲芻豆空	풀과 콩 먹자니 그 짓인들 해야지
却被果下驚	그런데 조랑말이 오히려 깔보고서
啼齷紛西東	동서로 날뛰면서 깨물어 대는구나.
已矣勿復道	두어라 다시는 말하지 말자꾸나
悵然仰蒼穹	푸르른 하늘이나 우러러 보아야지
達士雖放達	달사라면 비록 그 마음 크다 하지만
念此憂心忡	이런 일 생각하면 근심 마음을 채우네.

이 시는 그의 나이 36세 때 쓴 「赤驥行 示崔生」이라는 시이다.

10) 이 글에서 연작시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사회시의 영역에 포괄시키는 것은 임시적인 태도이다. 즉 사회시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또 시의 창작 계기와 동기가 사회시 성립의 근거로 인정 된다면 이런 임시 방편적인 태도는 수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시에서 赤驥가 자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재들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 다산이 천주교 신자로 몰려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고 끝내 同副承旨에서 黃海道 谷山都護府使로 좌천되어 외직으로 나가야 했던 때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시는 상황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단순 서술시이다. 따라서 사건 전개에 따른 극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지만, 적기로 묘사된 자신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이 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당대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이다. 특히 조랑말로 묘사된 일부 소인배들이 비판의 중심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당대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 속에 놓여 어찌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시 속에 비록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를 사회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작가의 의식 및 창작 의도가 개인적 성향을 띠며, 민중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향의 시들은 일단 사회시에서 배제하기로 한다.¹¹⁾

이렇게 다산의 사회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¹²⁾

-
- 11) 이런 경향의 시들로 이 글에서 사회시에 포함시키지 않은 시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1권 136의 「南瓜歎」, 2권 14의 「櫛鬢行」, 3권 96의 「赤驥行 示崔生」, 148의 「宿平邱」, 4권 35의 「道興」, 38의 「兒哥詞」, 45의 「有歎」, 49의 「追鹿馬行」, 5권 122의 「松風樓雜詩」, 6권 15의 「久雨傷稼次韻東坡久旱甚雨之作三首奉示湫翁」, 20의 「再疊爲悶旱作」, 21의 「六月廿四日坤方現奇雲竟亦不雨」 등이다. 이 외에도 다산의 문집에는 이런 경향의 시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 12) 이 도표는 다산의 「與猶堂全書」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시는 일단 배제하였다.

『與猶堂全書(新朝鮮社本 1936年 活字本)』 소개 다산 사회시 일람표

연번	권수	제목	수량	형식	창작 년월일	비고
1	2권	66.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	1首	7言古詩	1794年 正祖18年 甲寅 33歲	
2		71. 鍛人行奉示都監諸公	1首	長短句	1795年 正祖19年 乙卯 34歲	
3		73. 飢民詩	3首	5言古詩		
4		99. 苦雨歎 示南阜	1首	7言古詩		
5		114. 古詩二十四首	24首	5言古詩		제 14수와 15수만 해당됨
6		117. 次平澤縣	1首	7言律詩		
7		158. 孟華堯臣 卽吳權二友盛 言公州倉穀爲弊政民不聊 生試述其言爲長篇三十韻	1首	5言古詩		
8	3권	70. 不亦快哉行 二十首	20首	5言古詩	1796年 正祖20年 丙辰 35歲	제 18수만 해당됨
9		99. 笏谷行呈遂安守	1首	7言古詩	1797年 正祖21年 丁巳 36歲	
10		124. 和崔斯文游獵篇	1首	7言古詩	1798년 正祖22年 戊午 37歲	
11		125. 縱鷹篇	1首	7言古詩		
12	4권	28. 古詩 二十七首	27首	5言古詩	1801年 純祖1年 辛酉 40歲	제 5,6, 7,8,15 수 만 해당됨
13		39. 海狼行	1首	古體詩		
14		57. 烏魚則魚行	1首	長短句		
15		58. 長鬢農歌 十章	10首	7言古詩		제 4,7, 8장만 해당됨

16		93. 耽津村謠 二十首	15首	7言絶句		제 3,7, 8수만 해당됨
17		95. 耽津農歌	10首	7言絶句	1802年 純祖2年 壬戌 41歲	제 4,8 수만 해당됨
18		96. 耽津漁歌 十章	10首	7言絶句		제 6수와 9수 만 해당됨
19		103. 哀絶陽	1首	7言古詩	1803年	
20		104. 蟲食松	1首	長短句	純祖3年	
21		105. 黃漆	1首	長短句	癸亥 42歲	
22		117. 憎蚊	1首	長短句		
23		1. 夏日對酒	1首	5言古詩	1804年 純祖4年 甲子 43歲	
24		6. 憂來 十二章	12首	5言絶句		제 11 장만 해당 됨
25		45. 靈山刺失職也按察之臣 游 豫匪度勞者弗息焉	3首	4言古詩	1806年 純祖6年 丙寅 45歲	
26		93. 僧拔松行	1首	7言古詩	1808年	
27		94. 獵虎行	1首	7言古詩	純祖8年 戊辰 47歲	
28	5권	119. 狸奴行	1首	7言古詩	1810年 純祖10年 庚午 49歲	
29		120. 山翁	1首	7言古詩		
30		123. 采蒿	3首	4言古詩		
31		124. 拔苗	4首	4言古詩		
32		125. 蕎麥	1首	4言古詩		
33		126. 熬麩	3首	4言古詩		
34		127. 豺狼	3首	4言古詩		
35		128. 有兒	1首	4言古詩		
36		129. 龍山吏	1首	5言古詩		
37		130. 波池吏	1首	5言古詩		
38		131. 海南吏	1首	5言古詩		
39	6권	105. 肩輿歎	1首	5言古詩	1832年 純祖32年 壬辰 71歲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산의 사회시는 그가 33세 때 暗行御史 도중 창작한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에서 시작된다. 이어 34세 때 「鍛人行奉示都監諸公」이라는 장단구 1수와 「飢民詩」라는 5언고시 3수, 「苦雨歎 示南臯」라는 7언고시 1수, 「古詩 24首」라는 5언고시 24수 중 2수, 「次平澤縣」이라는 7언율시 1수, 「孟華堯臣 卽吳權二友 盛言公州倉穀爲弊政民不聊生試述其言爲長篇三十韻」이라는 5언고시 1수, 35세에 「不亦快哉行」이라는 5언고시 20수 중 1수, 36세에 「笏谷行呈遂安守」라는 7언고시 1수, 37세에 「和崔斯文 游獵篇」과 「縱鷹篇」이라는 우화시 계열의 7언고시 각 1수를 지었을 뿐이다.

33세 이후 시작된 다산의 사회시는 그가 유배되기 이전까지 7년 동안 11제 14수가 창작되지만 장기 유배 이후 10년의 유배 기간 동안 모두 27제 49수의 시가 창작된다. 창작된 시의 양이나 詩題수에서 모두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배 기간 중 창작된 사회시들은 유배 기간 내내 고루 창작되지만 44세부터 48세까지는 많은 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44, 46, 48세 때는 사회시를 한 편도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유배기 다산이 창작한 시 227제 557수 중 사회시 계열의 시는 28제 49수 정도이다.

유배 이후 다산의 시 중 사회시 계열의 시는 71세에 창작한 5언고시 「肩輿歎」 1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산의 사회시는 모두 39제 63수 정도로 그의 시 2,500여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극히 빈약한 것이다.¹³⁾ 그러나 다산이 33세 때부터 71세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시를 창작했다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나 나이에 관

13) 다산의 詩作品 수에 대해서는 金智勇이 2,466首라고 밝힌 이후 金彦鐘이 2,500餘首, 宋載卻가 2,000餘首, 그리고 金相洪이 2,286首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 정확한 수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미 발굴된 다산의 시가 계속 발굴되고 있다는 점과 다산 시문집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다산 일시의 문학적 연구」 참조.

계없이 지속적으로 대사회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모습이 그의 시세계가 지니는 특성 중 큰 부분으로 사회시를 들게만 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앞서 제시한 표에 나와 있는 39제 63수의 시를 대상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Ⅲ. 茶山 社會詩의 性格 變貌樣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다산의 사회시는 대체로 서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다산의 사회시가 고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고시가 근체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이나 장면을 조직하고 言志와 寫意에 적절한 자유로운 체제가 때문이다. 특히 고시는 근체시에 비해 형식의 제약을 덜 받고 길이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편의 서사시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런 고시의 특징은 다산의 사회시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민간의 정서를 수용하고 당대 현실에서 소재를 선택하며, 일상의 속어를 사용하여 민중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장편의 고시가 근체시보다 훨씬 유리한 시형이었다. 이처럼 고시는 서사를 위주로 하면서도 강렬한 비판 정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산의 사회시가 장편 고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다산의 사회시는 그의 나이 33세 되던 정조 18년 暗行御史 도중 창작한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에서 시작된다. 이 이후 71세 때까지 다산의 사회시 창작은 계속되지만 가장 많이 창작된 시기는 유배기라 볼 수 있다. 이런 다산 사회시 창작의 시기적 경과를 다산의 생애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의 생애는 흔히 수학기·사환기·유배기·해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뉜다. 이 네 시기 중 사회시가 창작된 시기는 사환기와 유배기 그리고 해배 이후인데, 해배 이후 다산의 사회시는 현재 71세 때 창작된 「肩輿歎」 1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산의 사회시가 본격적으로 창작된 시기는 사환 중기부터 유배 전기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그의 의식세계가 변해 감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성격을 움직여 간다. 우선 사회에 대한 인식 면에서 살펴볼 때 현실 고발에서 사회 비판으로 현재 사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간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다음 단계로 다산의 사회시가 대립 구조의 제시에서 저항 의식의 표출이라는 비판 정서의 심화와 확대로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다산의 사회시를 사환기-현실 고발과 대립구조의 제시와 유배기-사회 비판과 저항 의식의 표출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한다.

1. 仕宦期-현실 고발과 대립 구조의 제시

암행어사를 거치면서 다산은 당대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산의 이런 경험은 그 이전까지 다산의 시가 보여주던 비판의 방향이 당쟁¹⁵⁾이나 자기 현실에 대

14) 다산은 28세 되던 정조 13년(1789) 3월 10일 式年 殿試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3월 11일 禧陵直長에 제수되면서 벼슬하기 시작하여, 38세가 되던 정조 23년(1799) 6월 22일 刑曹參議를 사직하기까지 11년간 관직생활에 몸을 담았다. 암행어사 시기인 33세는 관직 생활 5년차에 해당한다. 또 다산은 40세부터 57세까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다. 현재 다산의 문집인 『여유당전서』에는 50세부터 57세까지의 시가 모두 빠져있다. 만약 이 시기 다산이 시를 창작하지 않았다면 다산의 사회시는 49세까지 창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시로 『여유당전서』 권 2, 14의 「柄鑿行」을 들 수 있다.

한 비판과 조소¹⁶⁾에서 대사회적인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사실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목도한 당대 사회의 모순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창작된 다산의 사회시들은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대상에 접근하였고, 시인의 의식과 목소리가 작품 속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가 일반적 서사시의 기본 구성인 序話 本章後話의 3장 형식을 따르기보다 상황묘사를 우선하게 하여 사건의 전개에 따른 극적 긴장감이라는 서사시의 중요 요소를 결핍하고 있지만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대상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강한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

두 번째 이런 태도는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가 대립 구도의 형상을 넘어 저항 의식의 표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작품 속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형성된 대립 구도를 통해 독자를 자극하거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니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런 태도는 이 시기 다산이 사회시를 창작한 의도가 현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고 이를 통해 위정자들이 자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사회에 대한 비판보다 백성에 대한 애정이라는 愛民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식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臨溪破屋如瓷鉢 시냇가 찌그러진 집 뚝배기와 흡사한데

16) 이런 의식을 보여주는 시로 『여유당전서』 권 1, 136의 「南瓜歎」을 들 수 있다.

北風捲茅椽齷齪	북풍에 이엉 말려 서까래만 앙상하네.
舊灰和雪竈口冷	묵은 재에 눈 덮여 부엌은 차디차고
壞壁透星篩眼豁	채 눈처럼 뚫린 벽에 별빛이 비쳐드네.
室中所有太蕭條	집안에 있는 물건 쓸쓸하기 짝이 없어
變賣不抵錢七八	모조리 다 팔아도 칠팔 푼이 안 된다네.
龍尾三條山粟穎	개꼬리 같은 조 이삭 세 줄기 걸려 있고
鷄心一串番椒辣	닭 창자 같은 마른 고추 한 꿩미 놓여 있네.
破甕布糊敷穿漏	깨진 항아리 뚫린 곳 형겁으로 발랐고
皮架索縛防墜脫	찌그러진 시렁대는 새끼줄로 엮매었네.
銅匙舊遭里正攘	놋수저는 지난날 이정에게 빼앗기고
鐵鍋新被隣豪奪	쇠냄비는 옛그제 옆집 부자 앗아갔지.
青錦敝衾只一領	담아 해진 무명이불 그도 한 채뿐이라서
夫婦有別論非達	부부유별 그 말은 가당치도 않구나.

兒稚穿襦露肩肘	어린것들 입힌 적삼 어깨 팔뚝 나왔으니
生來不著袴與襪	태어나선 마지 버선 걸쳐보지도 못했네.
大兒五歲騎兵簽	큰아이 다섯 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小兒三歲軍官括	작은애도 세 살에 군적에 올라 있어
兩兒歲貢錢五百	두 아들 세공으로 오백 푼을 물고 나니
願渠速死況衣褐	어서 죽길 원하는 판에 옷이 다 무엇이라.
狗生三子兒共宿	강아지 세 마리 애들과 함께 잠지는데
豹虎夜夜籬邊喝	호랑이는 밤마다 울 곁에서 으르렁대네.
郎去山樵婦傭春	남편은 나무하고 아내는 방아품 팔아
白晝掩門氣慘怛	대낮에도 사립 닫혀 그 기운 참담하다.
晝闕再食夜還炊	아침 점심 다 거른 뒤 밤에 와서 밥을 짓고
夏每一裘冬必葛	여름에는 솜 누더기 겨울에는 삼베 적삼
野薺苗沈待地融	들냉이라도 캐려 면은 땅 녹기를 기다려야고
村籩糟出須酒醞	찌끼라도 얻어먹으려면 이웃집 술 익어야지.
餉米前春食五斗	지난봄에 꾸어 먹은 환자가 닷 말이라
此事今年定未活	이로 인해 금년은 정말 살 길 막막하다.
只怕邏卒到門扉	나졸들 문밖에서 들이닥칠까 겁날 뿐이지
不愁縣閣受笞撻	관가 곤장 맞을 일은 걱정도 하지 않네.

嗚呼此屋滿天地	아아 이런 집들이 온 천하에 가득한데
九重如海那盡察	깊고 깊은 구중 궁궐 어찌 모두 살펴보라
直指使者漢時官	직지사자 그 벼슬 한 나라 때 벼슬로서
吏二千石專黜殺	이천석 지방관도 마음대로 처분했지.
弊源亂本禁未正	어지럽고 못된 근원 하도 많아 손 못대니
龔黃復起難自拔	공황 다시 일어나도 바로잡기 어려워리.
遠募鄭俠流民圖	그 옛날 정협의 유민도를 본받아
聊寫新詩歸紫園	새 시 한 편 그려내어 궁에 바쳐 볼까나.

이 시는 다산이 33세 10월 암행어사로 나가 경기도 적성 지역을 암행한 후 쓴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이다. 7言古詩 형식으로 된 40句 280字의 긴 시이며 내용상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은 14구까지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적성촌민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은 15구부터 32구까지로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초와 부조리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락은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경에 대한 서술이다.

이 시에서 다산의 목소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이전까지 다산은 단순한 서술자의 위치에 머물면서 자신이 목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 속에 옮겨놓고 있을 뿐이다. 또 그가 옮겨 놓고자 한 것은 당대 적성촌에서 살아가고 있던 민중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산의 시에는 사건보다 상황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다산의 시가 선택한 묘사 방법은 사실의 직설적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 시 속에서 극적 긴장감이라는 서사시의 중요 요소는 결핍되지만,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설득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이 시에 나타나는 대립 구도는 일방적인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적성촌의 민중들과 대립하고 있는

대상은 못수저를 빼앗아 간 이정, 쇠 냄비를 앗아간 옆집 부자, 다섯 살세 살 두 아들에게 군포를 받는 관가, 나졸이다. 그런데 이 대립 구도에서 적성촌의 민중들은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립 존재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속에서 적성촌의 민중들은 대립의 원인과 대상을 구체화하여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대립하고 있는 대상들이 앞서 열거한 존재라기보다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이고 대립의 원인은 그들이 겪고 있는 지독한 가난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런 구도는 다산이 대립을 통해 독자를 자극하거나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 다산의 신분이 암행어사라는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中庚過後水澤溢	중복이 지난 뒤 못의 물 넘쳐 올라
甌窶高田深沒膝	산비탈 높은 밭도 무릎까지 빠져드네.
有犁不耕苗不移	쟁기질도 할 수 없고 모내기도 못하니
如病既誤方蓼朮	이미 다된 병세에 인삼 백출 들이댄 격.

監司飛牒列郡擾	감사 공문 날아들자 고을마다 들썩들썩
急急課農如法律	농사일 서두르길 마치 법을 집행하듯.
使君騎馬親出野	고을 원님 말을 타고 친히 들로 나와서
家家門前暹呵叱	가가호호 문 앞에서 나오라고 호령하니.
健兒踰垣翁出伏	젊은이 담 넘어 숨고 노인 나와서 엎드려서
恭惟插秧時已失	“생각건대 모내기할 시기 이미 놓쳤으니
于今但得費服力	이제 와서 모심는 건 공력만 허비할 뿐
秋來誰遣觀刈鉏	가을 와도 낫질 구경 누가 할 수 있으리오
棉田黍田莠桀桀	목화밭 기장밭에 가라지 무성하여
八口荷鋤方惜日	여덟 식구 호미질 하루해가 아깝다오
傭人作事須有飮	사람 사서 일하려면 점심을 줘야 하는데
一斗之米從何出	한 말 쌀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使君立馬索箠楚	고을 원님 말을 세워 형장을 내리치며

惰農敢欲偷安佚	게으른 농군 네 감히 편안하길 꾀하느냐
傳呼婦子催出田	자식 며느리 불러서 논에 가라 재촉하네.
五步十步立苗一	다섯 걸음 열 걸음에 모 한 포기 심을 때
使君回馬入府去	고을 원님 말을 돌려 관아로 들어가니
隴頭放脚相笑啞	논두렁에 발을 뻗고 서로 꺄꺄 웃는구나.

農家一年所大慾	농가에서 일년 중에 가장 크게 바라는 건
種稻成禾食其實	모를 심어 익으면 그 열매 따먹는 것
赴幾常如鷺鳥迅	기회 포착 언제나 솔개처럼 빠르거니
豈待威嚴相恐惶	그 어찌 위엄으로 협박하길 기다릴까.
多謝使君念我饑	고맙소다 고을 원님 우리 굶을까 걱정하여
親來教我闢迷室	친히 와서 우리들 어리석음 깨우치시니

이 시는 다산이 34세 되던 해의 여름 中伏 뒤 장마를 겪고 나서 쓴 「苦雨歎 示南臯」라는 시이다. 앞 시와 같이 7言古詩 형식으로 된 28句 196字의 장편 서사시이다. 이 해 3월 右副承旨에 제수되었고, 7월 忠淸道 金井察訪으로 貶黜되었으니 이 시는 우부승지로 제직할 때 쓴 시라 보인다.

이 시도 앞의 시와 같이 전체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장마로 인해 더 이상 농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두 번째 단락은 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농민들 앞에 감사의 공문을 받은 원님이 나와 되지도 않는 농사일을 독려하는 상황 묘사이고, 세 번째 단락은 이런 원님과 관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조소이다.

이 시에서도 다산의 목소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이전까지 다산은 단순한 서술자로 자신이 접한 사실을 시 속에 옮겨놓으면서 설명하는 narrator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narrator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데, 다산 역시 이 시에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장마 뒤 불가능한 농사를 강제하는 관의 행위를

를 설명하고 조소하는 narrator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중심이 된다.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건에 반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에서 사용된 묘사 방법 역시 사건의 직설적 표현이다.

이 시는 두 방향의 대립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장마와 농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官과 농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장마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에서 발생하는 대립의 첫 번째 대상은 장마이고, 불가능한 농사를 강권한 관의 행위는 결국 농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립의 대상은 官이 된다.

하지만 이 두 대립의 대상은 당대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지 극복의 대상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첫 번째 대립의 원인인 장마가 당대 상황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天災라는 것과 두 번째 대립의 원인인 관의 개입이 농사에 무지한 관의 어리석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탈과 착취라는 절대적 부정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에서 농민들의 반응은 “使君回馬入府去 隴頭放脚相笑啞” 하는 정도로 그치고 만다.

이런 형식의 시들은 이 시기 창작된 다산의 사회시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다음 시는 역시 다산이 34세 되던 해에 창작한 「飢民詩」의 일부이다.

官饑惡人窺	관가 재물 남이 볼까 싫어 숨기니
豈非我所贏	어찌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나.
官廩愛馬肥	관가 마구간 사랑스런 살진 저 말은
實爲我膚肌	진실로 우리들의 피와 살이네.

(中略)

朱門多酒肉	고관집엔 술 고기 많기도 한데
-------	------------------

絲管邀名姬	이름난 기생 맞아 풍악을 울려
熙熙太平象	태평 세월 만난 듯 한껏 즐기고
儼儼廊廟姿	대감님네 풍도라 거드름 피네.
奸民好詐言	간민은 거짓말 즐겨 만들고
迂儒多憂時	오유는 때 걱정 넘쳐나서는
五穀且如土	“오곡이 풍성하여 지천인데도
惰農自乏貲	농사에 게으르니 가난은 당연
林蕙何其繁	총총한 수풀 같은 하 많은 백성
堯舜病博施	요순도 널리 베푸는 것 어려워했네.
不有天雨粟	하늘에서 쌀비가 아니 내리면
何以救歲飢	무슨 수로 이 흉년 구한단 말고”

이 시의 대립 관계는 시의 표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官廩愛馬肥 實爲我膚肌”라고 한 부분에서는 당대 민중들의 대립 의식이 구체적인 대상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 속에서는 드러난 구체적 대립 대상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그의 시가 백성에 대한 애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한 애민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산이 강한 애민의식을 지녔다는 것은 그 스스로 민중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민중 지향성을 지녔다는 뜻이 된다. 이 민중 지향성은 다산의 시가 당대 일반적인 양반·사대부들의 시와 구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그의 시가 바로 민중의 시가 될 수 없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流配期 - 사회 비판과 저항 의식의 표출

다산은 40세가 되던 純祖 1년(1801) 辛酉邪獄의 冊籠事件에 연루되어 2월 27일 慶尙道 長鬐縣으로 유배되었다. 이때 季兄 丁若鍾은 斬首되었고 仲兄 丁若銓은 薪智島로 유배되었다. 이 해 3월

9일 長鬐縣 馬山里에 도착하여 老校 成善封의 집에서 유배살이를 시작했지만 10월에 黃嗣永의 帛書事件이 일어나자 한양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全羅道 康津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순조 5년(1805) 白蓮寺에서 兒菴惠藏禪師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거처를 康津邑內 牛耳山 牛頭峰 아래의 寶恩山房으로 옮겼다가 이듬해 가을 康津 읍내의 牧里 鶴來 李晴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어 1808년 47세 되던 해에 康津의 處士 尹博의 山亭이 있는 茶山으로 거처를 옮기고 스스로 號를 茶山이라고 하였다. 1809년 48세가 되던 해부터 다산은 저술에 전념하여 解配가 되던 1818년 57세까지 그의 대표적인 저술들을 대부분 이루었다

다산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그의 현실 인식이 피상적인 관념의 단계를 벗어나 절실한 현장 체험으로 변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예리한 사회 비판과 강렬한 저항 의식을 가진 시들을 주로 창작하는데, 당시 피폐한 민중들의 현실을 현장에서 보고 이것을 시로 고발함으로써 시적 대상들과 일체감을 보이면서 농민들과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이 시기의 시 때문에 다산이 사회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현실 고발을 넘어 당대 사회를 직접 비판하고 대립의 대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록 그 저항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간접적인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대립의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의식이 유배 이전에 비해 현실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산의 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그의 의식과 정서가 유배라는 현실을 겪으면서 보다 민중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뜻한다.

鷄子新生小似拳 작기가 주먹만한 갓 태어난 병아리들은

嫩黃毛色絕堪憐 곱고도 노란 빛이 감쪽하게도 예쁘다네.
 誰言弱女糜虛祿 어린 딸 공밥 먹는다고 누가 말하느냐
 堅坐中庭看嚇鷺 꼼짝 앉고 뜰 가운데 앉아서 성난 술개 보는 데.

이 시는 「長鬢農歌 十章」의 다섯 번째 수로 田家의 마당에서 병아리를 지켜보고 있는 어린 아이를 묘사하고 있다. 다산은 이 시에서 이제 막 알에서 깨어 뒤뚱뒤뚱 걷고 있는 병아리의 모습과 그 병아리를 채어가려고 하늘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술개를 노려 보며 마당 가운데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눈에 보듯이 선하게 그려 놓고 있다.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산의 시선은 농민들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긍정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陂澤漫漫不養魚 연못 넓어도 물고기 안 기르고
 兒童慎莫種芙蓉 애들더러 연꽃도 심지 말란다네.
 豈惟蓮子輸官裏 연밥 따면 관가에 바쳐야 할 뿐 아니라
 兼怕官人暇日漁 틈 있으면 관리들 고기 잡을까 두려워서지.

이 시는 「耽津農歌」의 여덟 번째 수이다. 이 시 속에서 다산의 정서는 탐진의 농민들과 완전히 하나로 합해 있다. 탐진의 농민들이 관청에 보내는 원망의 목소리가 다산의 목소리와 하나로 합해져 있다는 것은 그의 정서가 그만큼 농민들과 일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서적 일체감은 다산이 지닌 민중들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당대의 현실이 다산의 當爲的인 理想과 어긋날 때 다산은 이전보다 더 무섭게 분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다산의 시가 지니는 이런 특징은 그가 興과 같이 怨도 중요한 시의 기능으로 여겼다는 그의 詩觀¹⁷⁾에 근본한다. 다산의 이러한 詩意識과 민

17) 「原怨」, 『與猶堂全書』, 卷 10. “父不慈子 怨之可乎 曰未可也 子盡其孝 而

중들에 대한 애정은 다산에게 당대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더 매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그가 지닌
이러한 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고발을 넘어 비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기 다산
의 사회시는 사실적 서술 방식을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재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형상화 방법에서 전 시기의 사회시
와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객관
적 묘사의 이면에 다산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시기
다산의 시와는 구별 된다. 이런 모습은 전술한 것과 같이 다산의
정서가 보다 민중에 접근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가 대립 구도의 형상화를 넘
어서 대립 구도의 원인에 대해 분노하고 또 저항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런 태도는 비록 다산이 독자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당대
의 부조리를 극복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의 부조
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반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
로 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蘆田少婦哭聲長	노전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哭向縣門號穹蒼	현문 향해 하늘에 울부짖네.
夫征不復尙可有	전쟁 나간 지아버가 못 돌아오는 수는 있어도
自古未聞男絕陽	남자가 양근 자른단 말 들어본 적 없다네.
舅喪已縞兒未澡	시아버지 상 당하고 애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父不慈 如瞽瞍之於虞舜 怨之可也 君不恤臣 怨之可乎 曰未可也 臣盡其忠
而君不恤如懷王之於屈平 怨之可也 父母惡之 勞而不怨 而子謂怨可乎 曰此
萬章公孫丑之所嘗惑 而鄒夫子之所已辨者也 …………… 故孔子曰 詩可以怨
當怨而不得怨 聖人方且憂之 故察乎詩道 而樂詩之可以怨也 司馬遷曰 小雅
怨誹而不亂 孟子曰 親之過大而不怨 是愈疏也 怨者 聖人之所矜許 而忠臣
孝子之所以自達其衷者也 知怨之說者 始可與言詩也 知怨之義者 始可與語
忠孝之情也 若夫好貨財私妻子 竊訕於閨房之內者 與無才無德 遭葉捐於清
明之世 而啁啾然好謗其上者 悖亂之行也 何數焉’

三代名簽在軍保	삼대가 모두 다 군보에 실리다니.
薄言往愬虎守閭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요
里正咆哮牛去阜	이정은 으르렁대며 마굿간 소 몰고 가네.
磨刀入房血滿席	칼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自恨生兒遭窘厄	자식 낳아 재앙 당해 한스러워 그랬다네.
蠶室淫刑豈有辜	무슨 죄가 있어서 잠실음형 당했던가
閭閻去勢良亦憾	민 땅 자식들 거세한 그것도 슬픈 일인데.
生生之理天所予	자식 낳고 사는 것 하늘이 정한 이치기에
乾道成南坤道女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駟馬猶豕猶云悲	말 돼지 거세도 서럽다 할 것인데
況乃生民恩繼序	대 이어갈 백성들이야 말해 무엇하리오.
豪家終歲奏管弦	권문세가 해 다하도록 풍류나 즐기면서
粒米寸帛無所捐	남알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는데
均吾赤子何厚薄	똑같은 백성 두고 왜 그리도 차별일까
客窓重誦鳴鳩篇	객창에서 거듭거듭 시구편을 외워보네.

이 시는 다산이 유배 생활 3년 되던 순조 3년(1803) 지은 「哀絶陽」이라는 시이다. 다산 사회시의 대표작으로 너무나 많이 소개된 시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시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 다산의 사회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표현 기법이 사건을 직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시기의 사회시와 동일하지만, 이 시에서는 대립 대상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蘆田少婦哭聲長 哭向縣門號穹蒼”라는 첫 두 구와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라는 9번째 10번째 구는 軍政의 문란으로 학대받던 당대 민중들의 저항을 의미한다.

이런 저항 의식의 표출과 함께 다산의 목소리도 시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의 마지막 네 구절은 「哀絶陽」이라는 시를 쓰게 된 다산이 그 자신의 의식과 목소리를 시 속에 직접 드

러낸 것이다. 이런 다산의 목소리는 현실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울분이 그에게 남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가 시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과 그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행위이다.

君不見	그대 보지 못했던가
弓福山中滿山黃	궁복산에 가득한 황칠나무를
金泥澄潔生蕤光	깨끗한 금빛 액체 반짝반짝 윤이 나지
割皮取汁如取漆	껍질 벗기고 즙 받기를 옷칠 받듯 하는데
拱把樞殘纒濫觴	아름드리 나무래야 겨우 한잔 넘친다네.
隨箱潤色奪髹碧	상자에다 칠을 하면 옷칠 정도가 아니어서
卮子腐腸那得方	잘 익은 치자로는 어림도 없다 하네.
書家硬黃尤絕妙	글씨 쓰는 경황으로는 더더욱 좋아서
蠟紙羊角皆退藏	납지고 양각이고 모두 뒤로 숨는다네.
此樹名聲達天下	이 나무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博物往往收遺芳	박물지에도 더러더러 그 이름 실려 있지.
貢苞年年輸匠作	공물로 지정되어 해마다 실려 가니
胥吏徵求奸莫防	징구하는 아전들 농간 막을 길 없어.
土人指樹爲惡木	지방민들 그 나무 악목이라 지목하고
每夜村斧潛來戕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찍었다네.
聖旨前春許蠲免	지난 봄에 성지로 공납 면제하자마자
零陵復乳眞奇祥	영릉의 종유석 다시 난 듯 하다니 참으로 상서일세.
風吹雨潤長髡柿	비 바람 맞고서 등걸에서 싹이 돌아
杖屨擢秀交青蒼	가지가지 죽죽 뻗어 푸른빛이 넘치리라.

이 시는 다산이 「哀絕陽」을 쓴 같은 해 지은 「黃漆」이라는 시이다. 이 시 역시 앞에서 살펴본 「애절양」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묘사 기법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시에서 다산은 황칠 공납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narrator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절이 되기까지 다산은 황칠 공납이 당시 민중들에게 끼친 해악과 이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자

신의 모습을 시의 이면 속에 감춘다. 이렇게 시 속에서 객관적 서술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다산은 마지막 두 구에서 그 자신을 시의 표면에 드러내면서 당시 민중들의 행위에 긍정하고 동의한다.

이 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민중들의 저항은 「애절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중들의 저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황칠 공납과 관련된 아전들의 농간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몰래 황칠 나무를 베어버린 민중들의 저항은 결국 공납 면제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저항이 당대 사회가 지닌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민중들이 다시 곤궁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저항은 저항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저항의 표현은 이 시기 다산의 다른 사회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蟲食松」의 마지막 네 구절 “네 욕심만 채우느라 지금 이리 죽어 났으니, 말을 하자니 내 기가 치받쳐 오른단다. 어찌하면 너공의 벼락도끼를 가져다가, 네 족속들 모조리 잡아 이글대는 용광로에다 처넣어버릴까(汝今私慾恣殄瘁 我欲言之氣上衝, 安得雷公霹靂斧 盡將汝族秉畀炎火洪鑪鎔)”나 「夏日對酒」에서 “아버지 말이너는 지체가 낮아, 순리도 흑리도 네겐 상관 안 돼. 자식놈 그제야 노발대발하면서, 책이고 활이고 던져버리고, 쌍륙놀이와 골패놀이, 마작놀이 공차기놀이를, 허랑방탕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시골구석에 늙어 과묵히버리지(翁云汝族卑 不管循與酷, 兒乃勃發怒 投書毀弓韉, 携蒲與江牌 馬弔將蹴鞠, 荒嬉不成材 老悖沈鄉曲)”라고 한 부분, 「僧拔松行」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 소나무 어리지만 그냥 두면 커지리니, 화근을 뽑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되지요. 그 전에 솔 심듯이 지금은 다 뽑아버리고, 잡목이나 남겨두어 겨울을 나렸더니, 아침에 관첩 내려 비자를 찾는다니, 그 나무마저 뽑아버리고 산문을 봉하리라(此松雖穉留則大 拔出禍根那得慵, 自今課拔如課種 猶殘雜木聊禦冬, 官帖朝來索樞子 且拔此木山門封)”이라고 한 것이

나, 「獵虎行」에서 “밤에도 문짝 치는 가증스런 그 관리들, 남은 호랑이 두었다가 그들이나 막았으면(生憎悍吏夜打門 願留餘虎以禦侮)”, 「狸奴行」에서 “내 이제 동궁에 화살 메워 네놈 직접 쏘 죽이고, 차라리 사냥개 시켜 횡행하는 쥐 잡으리(我今彤弓大箭手射汝 若鼠橫行寧嗾廬)”라고 한 부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¹⁸⁾.

이렇게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당대 사회가 지닌 불합리한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사회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민중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 저항성은 모순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거나 현실의 벽을 뛰어 넘고자 하는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미약한 반응으로, 당대 민중들이 처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중들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이를 시 속에 표현했다는 것에서 다산의 사회시가 지니는 의식의 강도를 보여준다. 이 강화된 민중성이 바로 유배기 다산의 사회시가 지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강화된 민중성에 의해 이 시기 다산의 사회시는 이전 시기보다 더 격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상황의 묘사 속에 다산의 감정이 스며들게 되고, 다산은 관찰자의 시선을 넘어서서 시의 표면에 개입하게 된다.

18) 이 장에서 유배기 다산의 寓話詩를 예로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것은 다산의 우화시가 본질적으로 저항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托物寓意라는 수법을 통해 묘사되는 우화시는 대상에 대한 衆意的 意味를 담고 있는데, 이 대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화시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IV. 結論

우리 漢詩史에서 사회시의 전통은 멀리 최치원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 사치에 젖어 사는 천박한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이웃집 여인을 비웃는 것을 통해 당대의 타락한 현실을 풍자한 최치원의 「江南女」는 우리 한시사에서 사회시의 先聲이라 할 만하다. 이 사회시의 전통은 고려를 거쳐 조선에 까지 이어진다.

사회시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시란 작가가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사회시의 성격을 한정하고 표현 기법을 정형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한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 사회시는 그 내용이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비판하고, 민중의 불만과 고통을 반영하며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이고, 시의 형식은 서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사회시의 보편적인 성격은 다산의 사회시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서사성을 강하게 지니는 고시를 통해 민중의 고통과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다산의 사회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사회시의 전통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산의 사회시는 몇 가지 점에서 그간 이어져 온 사회시의 전통을 넘어서는 면을 보여준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창작의 지속성이다. 양적인 면에서 우리 한시사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많은 양의 사회시를 창작했던 다산은 사환 중기인 33세부터 사회시를 창작한다. 이 시기에 시작된 다산의 사회시는 그의 생이 끝날 무렵인 71세까지 지속된다. 이런 사회시 창작의 지속성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대사회적 관심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이 관심은 다산의 생을 관류하면서 그가 처한 환경과 함께 성장·발전한다. 이에 따라 다산의 사회시는

초기 민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에서 민중과의 일체감으로 확대전이된다.

민중에 대한 일체감은 그의 사회시가 더 이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현실 고발의 문학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 사회시 창작 초기 다산의 사회시는 객관적 관찰과 관찰의 결과를 시 속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적 표현을 주된 창작 기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실적 표현은 상황과 장면의 제시를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확대된 민중과의 일체감은 다산에게 사실적 표현 이상을 추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다산은 시 속에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현실을 비판하게 된다.

다산의 시 속에서 볼 수 있는 저항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시를 통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를 긍정하였다는 것은 다산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시사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특히 이 저항 의식은 대립 구조의 극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 저항 의식이 대립을 넘어 극복을 지향하는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민중 의식이 성장할 기틀을 의미한다.

의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산의 사회시는 시 자체로만 보아도 대단한 문학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다산의 사회시가 단순히 사회 비판 의식만을 담고 있는 비판적 개혁 의식의 결과물이거나 자신의 울분을 사회 현실에 빚대어 풀어놓고 있는 한풀이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그 자신의 의식과 정서가 대상의 형상화를 통한 비판이라는 예술적 형상물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산의 사회시는 시의 표면에 대상을 향한 다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의 노출이 實情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러한 다산의 시세계는 본질적으로 대상의 진면목을 시 속에 있

는 그대로 재현하고, 이 재현을 통해 독자들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당대의 모순을 재현하고 있는 다산의 사회시는 당대의 현실을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이런 형상화 기법은 다산의 사회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적 특징이다.

다산의 사회시는 그 내용면에서, 또 시적 형상화 기법 면에서 당대의 시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어 내었다. 이 성취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다산의 시에 대한 고찰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Key words): 다산 정약용(Dasan Jung, Yak-Yong),
 사회시(a social poems),
 현실 고발(on complaint of actuality),
 대립 구조(the opposite structure),
 사회 비판(a social criticism),
 저항 의식(defiance of consciousness)

參考文獻

1. 資料

- 『與猶堂全書 補遺』, 5冊, 茶山學會, 景仁文化社, 1974.
- 『與猶堂全書』, 20책, 驢江出版社, 1985.
- 『與猶堂全書』, 76冊, 新朝鮮社
- 『與猶堂集』, 奎章閣本, 詩集 8冊 (No 11894 필사본)
- 『丁茶山 全書』, 3冊, 文獻編纂委員會, 1960 (신조선사본 영인)

『增補 與猶堂全書』, 6冊, 景仁文化社, 1970 (신조선사본 영인)
丁奎英, 『俟菴先生年譜』, 文獻編纂委員會 影印, 1961.

2. 論著

- 金卿東, 「元稹·白居易 社會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
- 金相洪, 「茶山 丁若鏞의 文學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5.
- _____, 『茶山 丁若鏞 文學研究』, 檀國大學校 出版部, 1985.
- 金智勇, 『丁茶山の 文學 研究』, 螢雪出版社, 1977.
- 朴茂瑛, 「丁若鏞 詩文學의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11.
- 宋載邵, 「茶山文學研究 - 詩를 中心으로 -」 서울대 博士學位 請求論文, 1984.
- _____, 『茶山詩 研究』, 創作과 批評社, 1986.
- 尹載煥, 「茶山 逸詩의 文學的 研究」, 『韓國漢詩研究』 14, 한국한시학회, 2006. 10.
- _____, 「茶山 詩의 興趣와 絳情의 客觀化」,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4.
- 이기현, 「茶山の 社會詩 研究」, 『한민족문화연구』 5권, 한민족문화학회, 1999. 1.
- 趙誠乙, 『與猶堂集의 文獻學的 研究』, 혜안, 2004.
-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研究』, 韓國研究圖書館, 1959.

A Study on Characteristic change of Dasan's a Social poems

Yoon, Jae-Hwan

I consider that Dasan's social poetry could be divided into two periods based on his life and change of his consciousness. His social poetry had started at his age 33 and ended at 71. Because of the point, he become a representative of social poet at late Chosun dynasty.

Dasan's social poetry are categorized old form poetry that have a lot of narrations mostly. The poetry were written by describing objective observations. If You research Dasan's social poetry more closely, the poetry show that its character ar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followed by turning his mind otherwise.

There are much intensification toward the time proved by that his social poetry included criticizing the society in the side of recognizing the society. Such change of consciousness are presented by opposite structure connoting expended and deepened resistance awareness.

This change of early creations of social poetry had been followed by that the concern and affection toward the people expanded to a sense of unity. A sense of unity toward the people. Real describing on early creations of social poetry represented situations and scenes so that they could persuade readers. But a sense of unity with the people leaded over just real represent of the society. Dasan criticize the society through writing his feeling and the people's resistance to the absurdity of the time.

The residence of his poetry has a limit as the time's circumscription but it is worth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because there are affirmative representations of the people toward the time.

윤재환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연구교수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1066번지 후곡마을 4단지 407-801

전화번호: 016-9871-1037

전자우편: inse-y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4월 27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